



제원	2017 Malibu	
	1.5L 터보	2.0L 터보
전장 (mm)	4,925	4,925
전고 (mm)	1,470	1,470
전폭 (mm)	1,855	1,855
윤거 (mm)	2,830	2,830
공차중량 (kg)	1,400 (17, 17인치) 1,420 (19인치)	1,470
엔진	1.5L DOHC I-4 VVT DI Turbo	2.0L DOHC I-4 VVT DI Turbo
배기량 (cc)	1,490	1,998
최대출력 (ps/rpm)	166 / 5,400	253 / 5,300
최대토크 (kg.m/rpm)	25.5 / 2,000~4,000	36.0 / 2,000~5,000
변속기	6-speed AT (6T40)	6-speed AT (6T50)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타입	
후륜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연비 (km/l)	16, 17인치 타이어	19인치 타이어
복합	13	10.8
고속	15.5	13.2
도심	11.4	9.4

쉐보레 올 뉴 말리부는 차급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차체 크기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1.5 및 2.0 터보엔진, 첨단 주행 안전 시스템을 장착해 중형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제공 | 쉐보레



내부 인테리어

제로백 6초 후반... '2.0 터보 모델' 상식을 깨다

쉐보레 '올 뉴 말리부' 시승기

중·저속서도 폭발적 주행성능 자랑 전장 60mm·휠베이스 93mm 확장 33mm 길어진 '2열 레그룸'도 장점 미 'NHTSA 안전성평가' 최고 등급

국내 중형차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출시된 쉐보레 '올 뉴 말리부'는 8일(영업일 기준)만에 1만대 계약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원동력은 상품성의 획기적인 혁신이다. 실내외 디자인, 차체 크기, 첨단 옵션, 합리적인 가격 책정 등 베스트셀링카의 모든 조건을 아우르며 중형 세단 시장의 확실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쉐보레 올 뉴 말리부 2.0 터보 모델을 시승해봤다.

● 넉넉함에서 오는 여유, 압도적인 차체 크기

중형 세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특히 세그먼트를 넘어서는 차체 크기의 넉넉함은 중형차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현대차 쏘나타가 오랜 시간 인기를 끌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 뉴 말리부는 기존 단점으로 지적되던 차체 크기를 장점으로 바꿔놨다. 전장은 60mm, 실내 공간의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는 93mm, 2열 레그룸은 33mm 길어졌다.

작은 차이가 아니다. 실제 운전석에 앉아보면 준대형급 차에 앉은 듯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확실하게 차체에 비해 넓다. 180cm 키의 성인 남성이 운전석에서 여유롭게 자세를 잡은 뒤, 바로 뒤 2열에 앉아도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의미 있는 변화다. 실내 센터페시아도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됐다.

● 2.0터보 모델의 압도적인 주행 성능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 모델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 CTS와 같은 4기통 2.0리터 직분사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최대 출력은 253마력, 최대 토크는 36.0kg.m이다. 그랬잖아 2.0 엔진이고 중형 세단이 얼마나 잘 나가겠냐는 생각은 편견이다. 공식적인 제로백(0~100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6초 후반에서 7초 초반은 쉽게 찍을 수 있다. 굳이 초를 세지 않아도 체감상 정차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순식간에 100km에 도달한다. 이후 180km/h까지는 별 스트레스없이 쭉쭉 가속된다.

초반 가속력에 있어서만큼은 스포츠 세단이 부럽지 않다.

터보 차량들은 대부분 낮은 rpm에서의 토크가 다소 약하다고 느껴지는데 말리부 2.0 터보 모델은 그 상식을 깨다. 20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중·저속에서는 폭발적인 파워를 낸다. 다만 100km/h 이상에서의 순간 가속력은 초기 출발 가속보다는 다소 느리다.

스티어링휠(운전대)의 반응 속도는 제법 빠른 편이고, 고속 코너링도 불안함 없이 소화한다. 다만 후륜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편이어서 전륜 구동 차량의 특성이 언더스티어보다 오버스티어 성향이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라면 너무 과격한 코너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이는 평범한 운전자가 일반 도로 주행을 할 때는 나

타지 않는 문제점이며, 충분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브레이크 성능도 초반 폭발적인 가속을 충분히 제어해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다. 급 제동시의 반응 속도는 제법 빠르다.

● 최고 등급 획득한 올 뉴 말리부의 첨단 안전 사양

올 뉴 말리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2016 신차 평가 프로그램(New Car Assessment Program) 안전성 종합평가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총 17개의 초음파 센서와 장·단거리 레이더 및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급 대형차에나 적용되던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ane K

eeper Assist), 저속 및 고속 긴급제동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은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해 준 자율주행차 수준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시스템,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전 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등의 안전사양도 갖췄다. 8인치 고해상도 풀 컬러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구현된 웨보레 마이링크(MyLink)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실내 인테리어의 개성 효과와 운전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구현해준다.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도 투박함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중형차에 가까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점도 반갑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멀티빔 헤드램프·자율주행... '벤츠 E-클래스'의 혁신

7년만에 풀체인지...6월말 국내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클래스(이하 E클래스·사진)'가 7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된 10세대 모델로 6월말 국내 출시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E클래스를 통해 운전 보조(driver assistance) 시스템,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디젤 엔진 등 다수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멀티빔(MULTIBEAM) LED 헤드램프다.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84개의 LED를 제어하는 4개의 컨트롤 유닛을 통해 주행 상황에 따라 전방 차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상황등을 작동시켜 야간 운전을 돕는다. 디자인 자체도 매력적이어서, 이미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ards)를 수상했다.

자율주행에 가까운 첨단 주행 안전 시스템은 독자적이다. '드라이브 파일럿' 기능을 통해 작동되는데, 미국 네바다 주에서 자율 주행 실험 면허를 취득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차량으로 등록된 만큼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에 근접한 주행이 가능하다.

교차로 진입 시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해 브레이크 압력을 보조하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추돌을 피해 스티어링 휠을 돌릴 경우 작동이 더 빨라 되도록 도와주는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 차선 이탈 시 브레이크까지 작동시켜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능동형 사각 지대 어시스트' 기능도 장착되어 있다.

또한 차량이 정차 중에도 후방 추돌이 예상될 경우 비상등 점멸과 함께 브레이크

압을 높여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 2차 추돌을 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프리 세이프 플러스', 측면 충돌시 충돌 반대편으로 몸을 밀착시켜 피해를 줄여 주는 '프리 세이프 임펠스 사이드' 등의 첨단 안전 사양이 장착된다.

더욱 세밀한 주행 감성을 전달하는 9단 변속기와 기존 모델 대비 파워는 24마력 증가하고, 소음 진동은 낮춘 직렬 4기통 디젤 엔진도 새롭게 선보인다. 다만 가격이 더 올랐고, 하이 트림의 옵션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쉽다.

원성열 기자

'쉐보레 어울림 한마당' 성료 한국지엠 임직원·가족 3만5000명 참가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14일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 부평 본사에서 임직원 및 가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6 쉐보레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3만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된 이날 행사는 부평 본사를 개방해 시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쉐보레 제품에 대한 관람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내수판매 증진을 도모했다. 신형 말리부 등 신제품 관람 및 시승, 쉐보레 명예

홍보대사 선발 퀴즈대회 및 SNS 이벤트, 각종 공예체험, 커맨스, 버스킹, 비보잉쇼 등이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급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스파크 11대, 다마스 2대 등 차량 총 13대를 지역 내 노인·아동·장애인 사회 복지기관 및 시설에 기증했다. 원성열 기자

BMW 3시리즈 'M스포츠 에디션' 출시

320i·328i 모델에 고급옵션 추가 18인치 경합급 휠·스포츠 시트 등

BMW 코리아가 스타일과 주행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3시리즈 M스포츠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BMW 3시리즈는 1975년 최초 등장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400만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한 BMW 브랜드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3시리즈 M스포츠 에디션은 6세대 320i와 328i 가솔린 모델에 새로운 M스포츠 패키지와 다양한 고급 옵션을 추가해 매력을 더했다.

18인치 경합급 휠과 내·외장 M 스포



츠 패키지, 시프트 패들을 포함한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 스포츠 시트 등을 추가해 주행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328i M스포츠 에디션에는 다코

타 천연 가죽 시트와 뒷좌석 열선, 내·외장 M스포츠 패키지를 더해 고급감을 더했다. 320i M스포츠 에디션은 4760만원, 328i M스포츠 에디션은 5540만원(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적용 기준 가격)이다.

한편 BMW 코리아는 5월 한 달간 3시리즈 M스포츠 에디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실용적인 운전 테크닉을 익힐 수 있는 어드밴스드(Advanced)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을 식사와 함께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기아차 니로, '1박 2일 고객 시승 이벤트'

기아자동차는 28~29일 1박2일 동안 '니로 고객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기아자동차 압구정 사옥에 집결해 사전 교육을 받고 시승 관련 물품인 엔젤 박스를 수령한 후 니로 하이브리드를 배정받아 춘천으로 출발하게 된다. 서울~춘천 간 시승코스에서 니로의 우수한 연비를 체험할 수 있는 '연비 콘테스트', 넓은 공간성과 안전성을 느낄 수 있는 'SNS 업로드 미션', 그리고 시승 코스 구간 내 '정속성 비교 구간' 설치를 통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정속성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니로'만의 우수한 상품성과 감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이벤트는 기존 시승 행사와 달리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는 글램핑 여행 일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카약 체험, 바비큐 파티, 미니 콘서트를 통해 참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벤트를 원하는 고객(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대상)은 22일까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www.Kia.com) 또는 기아차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kia.c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니로 TV 광고 패러디 동영상 제작, Mr.Niro 연출 사진 촬영, 니로 TV 광고 엔딩 패러디 제작, 니로의 7가지 대표 특징과 자신을 연관짓는 사연 접수 등 4가지 응모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응모하면 된다. 기아차는 4가지 응모 방법을 통해 접수된 콘텐츠 중 최고의 20팀을 선정한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